



나를 망치는 건 나일뿐

대화하고 나무 가꾸는 이는 나무와 대화하는데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자신과는 대화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담수명월난지나 심중활불난봉난 (潭水明月難持難 心中活佛難逢難)
산상기암고불시 광야현풍전묘법 (山上奇岩古佛示 廣野玄風傳妙法)
물에 뜬 저 달은 가져보기 어렵고
마음속에 산 부처 만나기 어렵네.
산위에 기암은 부처 같고
넓은 들판에 부는 사람은 묘한 이치 전해주네.

성수 스님은 열아홉 살에 원효대사 같은 도인이 되겠다고 집을 나와 전국을 떠돌아다녔다. 일 년 동안 도인을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기에 범어사에 가서 “큰 중 나오라”라고 소리 질렀다.

“그 넓은 절이 떠나가도록 소리소리 지르니 범어사 중들이 다 나왔지만 ‘새끼 중 말고 어른 중 나오라’고 하니 나중에 주지 스님이 나오네. 왜 그러느냐고 하길래 ‘도인을 찾아 일 년 동안 다녀보니 고대광실 같은 집에 살면서 공부안하는 중들 밖에 없더라. 결혼 안해서 나라에 해를 끼치고, 놀고 먹으니 국가에 손실만 주니 다 때려죽이려고 그러다’ 했더니 그 주지 스님이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고 한 나절을 눈물 흘리는 거라. 좀 미안한 생각이 들네. 그때 주지 스님이 동산 스님이신데 5년 후에 범어사에 도둑으러 갔더니 상좌들도 다 있는데 나한테 살림을 맡기네. 백 명이 넘는 대중들이 살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장을 봐다 날랐어. 공부해야 하는데 장에 자주 가면 쓰나. 한 번 가면 트럭 한 대 그득하게 실어왔어. 그걸 보고 동산 스님이 놀라시네.”

성수 스님의 서술 푸른 기상과 삼강처럼 큰 배장과 포부를 당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싶다. 성수 스님은 조계사,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표충사 등 6개 본사급 주지 소임을 맡았는데 그 소임도 딱 일 년씩만 했다. 그동안 지은 절만 해도 70여 채가 넘지만 모연론 한 번 돌려본 적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기도나 축원을 하지도 않았단다. 스님은 참으로 탁월한 재주를 지녔다고 하니 그것은 재주가 아니란다.

“돈을 깨끗하게 써 줄수록 돈이 인사하고 따라다녀.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면 천해. 돈이 사람을 따라 다니어지.”

성수 스님은 불살생(不殺生)의 뜻을 아느냐고 물으셨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왜 물으실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 스님께서 말씀꺼이 여겨갔다.

“전부 소나 개, 벌레 등 타(他)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어서 각자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인 줄 모르고 남의 목숨만 죽이지 않는 줄 알고 있어. 부처님

이 중생을 톺 보니 ‘나고 죽음의 꿈을 깨지 못하므로 너무 애처로워서 중생은 나고 죽음의 고해바다에서 벗어나라’고 불살생을 말씀하신 것이지. 파리한 마리는 죽이기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은 하루에도 수없이 죽고 사는 것을 모르니 참으로 안타까워.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죽지 말라’고 간곡히 설한 말씀이야.

불살생이 참으로 나의 일인 줄 알아야만 조금이라도 생사에 겁을 낼 터인데 눈이 밝지 못하여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라. 타(他)를 죽이지 않겠다는 생각 이전에 내가 안 죽을 연구부터 해야지. 정말 죽기 싫다면서 부처님께 안 죽는 도리를 알려달라고 간이 타도록 애원해봐야지. 그래도 안 알려주면 알고 싶은 마음에 한이 맺히고, 알고 싶은 욕심이 필필 끓어올라야지. 안 가르쳐 주면 왜 안 가르쳐 주냐면서 주먹으로 부처 콧등을 한 대 쥐어박을 정도는 돼야 생사해탈의 맛을 볼 수 있지. 생사해탈의 맛을 보는 자가 바로 부처님의 뜻을 아는 산 제자라 할 수 있지. 생사밖의 도리가 다 여기 있어.”

불살생 이 석자가 선법(禪法)인데, 이 선법만 확실히 알면 생로 병사(生老病死)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법이란다.

“쇠가 쇠를 먹고 물이 물을 먹으며, 이웃이 이웃을 괴롭히며, 불법(佛法)은 불자가 해치고, 내가 나를 망치고 짓밟는 이는 오직 나 일뿐 다른 이가 더럽힐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돼.”

중생이 부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내 속에 있고, 부처가 중생들을 하는 것도 남이 아니라 바로 내 탓임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이젠 남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한다.

“부처님은 도둑을 때 세가 와서 머리에 똥을 싸도 원망 안 하고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항상 생활했어. 우리가 현재 비 안 맞고, 옷 안 벗고 사는 그것이 바로 복 아닌가? 행복하게 사는데도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욕심이 끝없기 때문이야. 부처님께서 ‘민족심이 제일 큰 복’이라 했어. 마음속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면 뉘스룩 쌓아 놓은 물질이 휘발려 정진까지 있어버리게



되는 것이야.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참회를 꼬박꼬박해서 불행 없는 인간. 원망 없는 인간이 되도록 원을 세워서 노력해야지. 인도의 가난한 안타리 여인은 여덟 달 동안 일한 품삯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등을 울렸지만, 정성을 다했기에 풀뚝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이참에 좀 새겨들어야.”

“이러울 때일수록 물질이 담긴 좋은 등보다는 해를 밝히겠다는 원이 담긴 등을 켜야 한다”는 성수 스님의 말씀은 시름에 젖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등불이 되어 줄 것 같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석지식 禪

41. 효성 조명기 박사

조명기(1905~1988) 박사는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다. 통도사 출신으로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여 정토진종에서 수학을 하고, 얼굴빛이 노르스름하여 부처님과 비슷했다. 키는 조금 작아도 몸이 부대(富大)하여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이 근엄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나무야미타불을 수 없이 부르는데, 처음에는 각기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더니 30분, 40분, 1시간, 2시간이 되니 모두가 야미타불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총장님 얼굴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빛나게 되었습니까?’에 대한 답변이다. 어려서는 호박같이 생겨 ‘물수통’이란 별명을 가졌고, 절에 와서는 행동이 워낙 느려 ‘곰뽕이’라는 별

명이나? 하며 불끈 들어 마당에 다 내뽕뽕이 쳤습니다. 그때 왕건 태조는 크게 아팠을 꺼야.”

하고 칠판을 바라보고 5분, 10분 그 아픈 시늬를 하여 박장대소를 한 입도 있었다.

일생을 실천불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려사·사찰 사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열반 후에 <한국불교사학 대사전>이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



공양 때문에 여간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대학 1학년 때는 불교문화를 강의하였고, 2학년 때는 신라불교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시간이 바빠 못나오게 되면 미리 알려 학생들끼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 지방학생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르바이트 할 곳을 소개해 주고 학자금도 부족할 때는 보태주기도 하였으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연구소에 나오라 하여 일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불교는 불타(佛陀)의 완전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종교이므로 여러분도 자기 체험을 통해 교주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장이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침투된 진정한 깨달음이기 때문

누구에게나 존대... '한국불교사학대사전' 후학에 좋은 자료

명을 가졌다 한다.

그런데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니 빨리 빨리 하면서도 천천히 그 일을 정확히 하여 이론과 실제가 꼭 맞게 하기에 집 한 채를 지어놓으면 백년도 가고 천년도 가게 하였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바로 보고 강의를 하는 법이 없었다. 학생들이 쳐다 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니라 부처와 부처가 서로 마주보면 두 눈 사이에서 불이 날까 두려워서 그러신다 하였다.

“고려 태조가 전장에 갔다 오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만 다가는 나라 꼴이 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임금님을 죽여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까’ 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마음을 훤히 다 안다’ 한다. ‘나는 꼭 죽었구나’ 하고 집에 돌아와 누워 있으니까 부인 이 ‘이왕에 죽을 바야야 궁중에 들어가서 죽지 왜 집에서 죽으려

공하게 되었다. 백성욱 박사가 총장님으로 계실 때 2학년 학생들이 금강경 특강을 김포광 박사님께 듣자 하여 할 말에 할 말 하 마직을 주고 강의를 듣기로 하였다. 그런데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받은 할 말 가머는 예외로 치고 부총장님께 강의를 청구하자, 총장님이 이를 아시고 학생들 앞에서 종아리를 걷고 하고 매를 때렸다. 그런데도 박사는 눈 눈 한번 짙지 않고 열대의 매를 다 맞았다.

사실 김포광 박사는 이로 인해 대학원 강의를 한 달에 두 번 씩 하고 용돈을 타서 쓰게 되었으나, 어쩌면 전화위복이 된 일이라고도 생각된다. 생각하면 학생들이 학교 밖의 강사나 교수들께 강의를 받으려 할 때는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하고 또 그만큼 준비도 해야 하는 것인데, 강의 들을 생각만 하고 그냥 모셔 가실 때나 오실 때 차비며 끝나고 난 뒤의

일이다.”

백성욱 총장님은 누구에게나 반말이다. 기산 임석진 스님을 빼놓고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논하지 않는다. 그런데 효성 조명기 박사는 누구에게나 존대 말을 쓴다. 집에 가서도 사모님께,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한 번도 하대 말을 쓰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다. 타당성을 초월한 타당성을 체험하게 하는데,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행으로 보이셨다. 진실로 실천적인 불교학자였다.

지금도 <불교문화>와 <고려 대각국사와 천태사상> <한국불교사학 대사전>을 보면 얼마나 말을 아끼고 행을 소중히 여겼던가를 알 수 있다. 박사님께서 일생을 두고 소중히 모셔왔던 불교문화 <방학대와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이나 설총의 ‘관경변상도’ 등을 보면 선생님을 천히 봐 온 듯 반갑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복도 앞 좋고 불경이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 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호텔, 여관, 병원, 각종화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문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방,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생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범람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사라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의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